

碩士學位論文

濟州 칠머리堂굿 12祭次에 나타난 舞踊研究

- 公演實行을 통한 舞臺化 -

指導教授 朴 熙 太

中央大學校 藝術大學院

舞踊專攻

金 姬 淑

2001 年 2 月

濟州 칠머리堂굿 12祭次에 나타난 舞踊研究

- 公演實行을 통한 舞臺化 -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 년 2 월

中央大學校 藝術大學院

舞踊專攻

金 姬 淑

金姬淑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審査委員長 _____ ㉠

審査委員 _____ ㉠

審査委員 _____ ㉠

中央大學校 藝術大學院

舞踊專攻

金 姬 淑

2001年 2 月

차 례

I. 초록(연출 및 제작 동기)	1
II. 대본 작업	3
1. 작품 선택	3
2. 어렌지	6
3. 1차 대본	7
4. 공연용 대본	11
III. 작품 분석	18
IV. 작업 일지	19
V. 공연 결과 보고서	26
VI. 공연 관련 보도	28
VI. 공연 사진	31

부 록

- 1) 공연 비디오
- 2) 공연 팸프렛

I. 초록(연출 및 제작동기)

제주의 민속무용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인 이유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 민속무용의 특성을 살펴볼 때

첫째로 노동 혹은 여타의 일상에서 파생된 무용과

둘째는 제주가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무속에서 파생된 무용,

셋째로 전문 예능 집단에 의하여 전승되어 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작에 의한 무용 등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세 번째로 거론된 전문 예능 집단에 의하여 전수되는 무용은 찾을 수가 없는데 관기들에 의한 여러 모습의 춤들과 사찰에서 연행되었을 춤 등 전문 집단에 의해 전승되던 것들이 분명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남아 있는 흔적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전수를 담당하던 체계가 짧은 순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정지되었던지 혹은 그 무용들이 지니고 있었던 성격이 제주도민이 전승 발전시키기에는 부적합했던 것이 아니었나 추정될 뿐이다. 또한 생활에서 파생되어 전승되는 춤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억눌렸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활에서 파생되거나 전문 예능 집단에 의하여 전승되는 민속무용이 없다는 것은 제주가 민요의 보고라고 일컬을 만큼 민요의 부분에서 다양한 모습과 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 볼 때 제주 지역의 예술적 토양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도 있다. 물론 개개인이 흥겨울 때 추는 춤도 있고 무대 위에서 실연되기도 하였으나 춤에 있어서 순서라든가 구성상의 줄거리 등의 체계가 부족한 것이어서 마땅히 소개할 만하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무속에서 파생되고 전승되는 춤은 무속이 지니고 있는 어느 정도 완벽한 전승 체계로 인하여 민속무용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며 이어져 오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춤사위가 투박해 보이고 신이 올라야 제 춤사위가 나온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춤이 지니고 있는 구성의 탄탄함과 짝 찬 내용, 멈추지 않고 흐르는 줄거리 등은 어느 지방의 무속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방의 무속 중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은 ‘칠머리당굿’이다.

칠머리당굿은 중요무형문화재 71호로 지정이 되어 전승되고 있는 바 당시 보유자인 안사인씨가 타계하신 후 현재는 김윤수씨가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민속무용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곳이다. 칠머리당굿에서 칠머리당은 현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을 이르는 것으로 어부나 해녀의 해상 안전과 풍요를 비는 의례이다.

이러한 칠머리당굿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은 문학적인 성과와 음악적인 성과가 상당하나 무용의 측면에서의 고찰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며, 또한 이를 무대화하는 과정에서의 재구성작업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그 중에서 무용으로서 가치가 있는 열두(12) 제차(祭次)에 연희되고 있는 춤사위를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이의 무대화과정을 통하여 제주굿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체계를 정립코자 한다.

II. 대본작업

1. 작품 선택

작품의 주제인 칠머리당굿의 제차(祭次)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나 큰 제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초감제 : 모든신을 청하여 좌정시키고 기원하는 제차
- (2) 본향뚝 : 본향당신을 청하여 기원하고 놀리는 제차
- (3) 요왕맞이 :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우고 닦으며 맞아들이고 기원하는 제차
- (4) 마을 도액막음 :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제차
- (5) 씨드림 : 미역, 전복, 소라 등의 씨를 뿌리고 그 흥풍을 짐치는 제차
- (6) 배방선 :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치송하는 제차
- (7) 도진 : 모든 신을 돌려보내는 제차

각각의 제차는 다시 소제차의 형식으로 다시 구분되는데

(1) 초감제

- ㄱ. 베포도업침 :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의 발생
- ㄴ. 날과 국 섬김 :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
- ㄷ. 연유닦음 : 당굿을 올리게 된 연유
- ㄹ. 군문열림 : 신이 하강하는 신궁문(神宮門)을 여는 과정
- ㅁ. 분부사뵈 : 신칼점과 산판점을 통하여 신탁(信託)을 하는 과정

- ㅂ. 새드림 : 정화수 등을 뿌리며 정화하는 과정
- ㅅ. 정대우 : 1만 8천 신들을 제장(祭場)으로 모시는 과정
- ㅇ. 열명올림 : 곳에 참석한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축원하는 과정

(2) 본향뚝

- ㄱ. 베포도업침 :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의 발생
- ㄴ. 날과 국 섬김 :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
- ㄷ. 연유뉘음 : 당곳을 올리게 된 연유
- ㄹ. 군문열림 : 신이 하강하는 신궁문(神宮門)을 여는 과정(여기서는 봉향당 신의 하강하는 문만 연다)
- ㅁ. 신청께 : 본향당신을 청해 들이는 차례
- ㅂ. 삼헌관 절시킴 : 삼헌관이 상(床)을 올리고 절하는 과정
- ㅅ. 자손들 소지올림 : 참석자들이 소지를 올리고 축어나는 과정
- ㅇ. 도산받아 분부사뉘 : 마을의 일년 운수를 신탁받는 과정
- ㅈ. 석살림 : 가락과 춤으로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제차

(3) 요왕맞이

- ㄱ. 베포도업침 :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의 발생
- ㄴ. 날과 국 섬김 :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
- ㄷ. 연유뉘음 : 당곳을 올리게 된 연유
- ㄹ. 군문열림 : 신이 하강하는 신궁문(神宮門)을 여는 과정
- ㅁ. 요왕질침 : 용왕과 영등신이 하강하는 길을 앞두고 맞이하는 제차

- ㄴ. 신청례 : 용왕과 영등신을 청하는 과정
- ㄷ. 나까도전침 : 여러 신들에게 시루떡을 대접하는 과정
- ㄹ. 방광침 :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제차
- ㅈ. 요왕문 열림 : 용궁길을 여는 과정
- ㅊ. 지아림 : 용왕신과 망자에게 제물을 바치는 과정

(4) 마을 도액막음

액막이 상을 차리고 ‘스만이 본풀이’를 하며 액을 막고 행운을 기원하는 제차

(5) 씨드림

미역, 전복, 소라 등의 파종(播種)의 과정

(6) 배방선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치송하는 제차

(7) 도진

모든 신을 돌려보내는 제차

** 같이 행해지는 영감놀이는 논외로 한다.

2. 어렌지

굿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ㄱ. 청신과정(請神過程) --- 해당신을 굿에 청하여
- ㄴ. 가무오신과정(歌舞娛神過程)--- 청해 온 신을 무가 가무로 즐겁게 하고
- ㄷ. 신의청과정(神意聽過程)--- 초청된 신이 무에게 내려 공수로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달하게 된다.
- ㄹ. 송신과정(送神過程)--- 굿에 초청된 신을 돌려보낸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무용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부분을 골라내야 했으며 많은 과정 중에서 열두 가지 제차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굿이 발생하게 된 지역적 환경을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굿의 원류로 2장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3. 1차 대본

1막 3장

서장 : 섬

2장 : (현 보유자 출연)

베포도업침

정장한 수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 서서 천지개벽, 일월성신의 발생, 국토의 형성, 국가 및 인물의 발생을 아뢴다. 각 단락마다 소미의 북, 설쇠, 대양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넘긴다.

군문열립

신들이 하강하려면 신궁문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요란한 도랑춤으로 군문을 여는 과정을 시행한다

새드림

신이 오는 길의 모든 사(邪)를 쫓아 깨끗이 하는 과정으로 땃짚으로 정화수를 적셔 뿌리며 부정을 씻는 춤을 흥겨운 무악반주에 맞추어 춘다.

3장 :

신청께 1

본향당신을 청해 들이는 차례로 수심방은 감상기, 신칼, 쌀이 담긴 산판을 양손에 나누어 들고 감상기와 요령을 흔들며 춤을 추다 산판에 담긴 쌀을 몇 차례 뿌리며 제단 앞으로 와서 춤을 추는 과정을 반복하며 격렬해진다. 한참 도랑춤으로 제장을 돌던 수심방이 두 개의 신칼을 가위 모양으로 하여 오른쪽 손가락 사이에 끼고 활을 쏘듯 손을 들어 달달 떨어지며 본향당신이 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요왕질침

요왕질침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한다.

- 1) 요왕문 돌아봄 : 용왕이 오시는 길을 돌아보는 춤.
- 2) 언월도로 베기 : 용왕길에 무성한 해초를 언월도(신칼)로 베는 시늉의 춤.
- 3) 작데기로 치우기 : 베어놓은 해초를 작데기(뗏가지)로 치우는 시늉의 춤.
- 4) 은따비로 파기 : 해초를 베 후 우뚝뚝한 그루터기를 파는 춤.
- 5) 발로 고르기 : 그루터기를 판 후 고르지 못한 지면을 발로 밟아 고르는 춤.
- 6) 물메로 깨기 : 지면을 고르다 나오는 돌부리를 요령을 흔들며 깨는 시늉을 하며 요왕문을 도는 춤.

- 7) 삼태기로 치우기 : 깨어 놓은 돌을 참석한 주민이 삼태기로 치우는 춤.
- 8) 미레깃대로 고르기 : 신칼을 가로 들고 밀어 닦는 시농의 춤.
- 9) 이슬다리 놓기 : 먼지가 나는 길을 입에 문 술을 뿌려 깨끗이 하는 춤.
- 10) 마른다리 놓기 : 물을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 띠를 그 위에 뿌리는 춤.
- 11) 나비다리 놓기 : 띠를 뿌린 후에 종이조각을 뿌리는 춤.
- 12) 차사다리 놓기 : 긴 무명을 요왕다리 옆으로 넣는 춤.
- 13) 울구멍 메우기, 시루다리 놓기, 흥마음다리 놓기 : 다리로 놓은 피륙 위에 쌀을 뿌리고, 시루떡가루를 뿌리고 요령을 흔들며 용왕다리를 돈다.

신청례 2

신청례 1과 달리 용왕과 신을 청하는 노래와 춤을 춘다.

나까도전춤

큰 시루떡을 공중으로 던졌다 답았다 하며 춤추다가 여러 신들에게 이것을 올리고 잡신에게도 대접하는 춤.

요왕문 열림

요왕문을 상징하는 꽃혀 있는 대가지를 하나 하나 뽑는 춤으로 대가지와 다리를 상징하는 무명천을 태운다.

마을 도액막음

액막이 상을 내놓고 사람 목숨 대신 닭을 잡아 가도록 하는 의미에서 수 닭을 죽여 닭 밖으로 던진다.

씨드림

요란한 장단에 맞추어 해녀 여러 명이 한참 격렬한 춤을 추다가 그녀들의 어깨에 맨 밀망탕이에서 좁씨를 사방으로 뿌리며 그 해의 바다농사를 점치는 춤.

배방선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치송하는 제차의 춤.

도진

모든 신을 돌려보내는 제차.

4. 공연용 대본

(1) 초감제 /요왕맞이 /길뒹음

여기에서 작품은 초감제를 시작으로 하여 본향뚝, 그리고 요왕맞이까지를 압축하여 재해석하고 있다. 각각의 제차에서 초감제는 8과정, 본향뚝은 9과정, 요왕맞이는 10가지 과정의 작은 제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4번째 과정까지인 베포도업침, 날과 국 섬김, 연유뒹음, 군문열림까지는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제차로

베포도업침이란 천지개벽과 일월성신의 발생, 국토의 형성, 국가와 인물의 발생 등을 아뢰는 일로 각 단계마다 북, 대양, 설쇠의 반주에 따른 춤이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는데 자연현상을 노래하는 것을 ‘베포친다’고 하고 인문현상의 발생을 노래하는 것을 ‘도업친다’고 하는 것이다.

날과 국 섬김은 위의 역사, 지리적 해설을 좁혀나가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하는 과정이고

연유뒹음이란 여러 신앙민이 모여 당굿을 올리게 된 연유를 사뢰는 것이고 군문열림은 신들이 하강하는 신궁의 문을 여는 과정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 과정을 솔리스트의 장엄한 무용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연후에 수무(首巫)와 소미(小巫)들이 나와 주요 제차인 신청괘와 요왕질침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길뒹기 춤이 구성되는데 칠머리당굿의 춤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되어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청괘란 굿을 하는 대상인 당신 또는 요왕신을 청해들이는 제차로 여러가지 소도구(감상기(오색의 깃발), 신칼, 산판, 요령 등)를 동원하여 춤을 추게

된다. 그 다음으로 작품에서 구성된 것이 용왕질침, 즉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험한 길을 치워 닦으며 정성을 다하는 제차이다.

수심방(수무)와 소미들이 등장하여 요왕문을 돌아보며 언월도로 베고 작데기로 치우며 은따비로 파는가 하면, 발로 고르고 물메로 깨고 삼태기로 치우고 미레깃대로 고른다. 연후 술을 뿌리며 이슬다리를 놓고 띠를 뿌리며 마른다리를 놓은 연후에 종이조각을 뿌려서 나비다리를 놓고 긴 무명천을 깔아 용왕이 올 요왕다리를 놓는 과정이 춤으로 풍부하게 표현된다.

(2) 향로춤

칠머리당곳의 특수한 면의 또하나는 향로와 장고의 쓰임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향로와 장고가 육지부의 곳 등에서 보이는 역할과는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는 것이다. 향로가 부정을 치는 향을 피우는 역할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무당춤의 무용소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며 장고의 경우 말명장고라 하고 말명장단이라 하여 특이한 쓰임새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 구성하였다. 즉 말명장단을 이용하여 향로춤을 재구성하여 부정치는 과정을 새롭게 형상화하였다.

또한 칠머리당곳에 새드림이라는 특이한 제차가 있다. 이 제차는 수심방이 신이 내려오는 신궁문을 열고 나면 소미들이 나와 말명장고의 반주에 신이 모는 길의 모든 사(邪)를 쫓아 깨끗이 하는 과정인데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새드림의 구음을 바탕으로 하여 말명장고를 무구로 사용하여 무대화하였다.

이는 전혀 새로운 시도로서 지금까지 곳에서 행해지던 역할을 바꾸어 확대하는 작업이며, 재해석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품의 시도가 타지역에 비해 무용적으로 부족한 제주 칠머리당곳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대중과 종교적이거나 혹은 여타의 이유로 배척당하는 전승예술을 더욱 가깝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 퇴송

위와 같은 제차가 진행된 후 마을도액막음과 씨드림의 제차가 있는데 마을도액막음은 마을에 액을 퇴치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씨드림이란 각종 해산물의 씨를 뿌려 풍요를 기원하는 제차로 춤으로 형상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과정으로 제외하고 나면 퇴송의 제차가 이어진다.

이 작품은 배방선과 도진이라는 제차를 무대화한 것이다.

배방선이란 지금까지 모시고 굿을 진행한 대상인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치송하는 제차이고 도진이란 모든 신을 돌려보내는 제차이다.

이 과정은 특이하게 따로 영감놀이란 제차가 끝나면 함께 행해지는데 영감놀이는 제주도무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기도 하다. 영감놀이에서의 배방선과 도진이 제장에 모신 야채참봉(도깨비)를 돌려보내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굿의 마지막 과정에서 제장에 모셨던 신을 돌려보내는 과정이 같으며 띠배에 각종 제물(祭物)을 신고 보낸 후 참석자 전원이 흥겹게 판을 놀리며 마무리 하는 것은 같다.

띠배란 짚으로 만든 모형배를 말한다. 이 띠배가 영등날 물때를 맞춰 바다 멀리까지 침수되지 않고 떠가는 것을 보며 그해의 삶의 위안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4) 푸다시

푸다시의 원형은 영감놀이(제주도 무형문화재 2호)의 한 과정으로 ‘막푸다시’라고 한다.

영감놀이란 제주도의 무당굿 중 놀이굿 형태의 하나로 도깨비신에 대한 굿인 동시에 놀이다. ‘영감’은 또한 참봉(參奉), 야채(夜叉)라고도 하는데 모두 도깨비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타도에 비해 제주에서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진지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 당신(堂神)으로 위하기도 하고 대장간의 풀무 수호신으로 위하기도 하고, 집안의 조상신으로 위하기도 한다. 이 신은 집안에 잘 모셔서 후하게 대접하면 일시에 거부가 되게 해주고 특히 어부들이 잘 위하면 풍어를 약속하는 신으로 어선에서 선왕(船王)으로 모시기도 한다.

영감놀이 중에서 푸다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람에게 범접한 잡귀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보이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굿에 참가한 모든 이들을 정화하는 춤으로 재구성하였다.

(5) 무속의 군무

위와 같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제주 칠머리당굿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압축하여 춤으로 무대화 하였다.

사용된 악기와 음악 또한 칠머리당굿에서 사용되는 것을 원용하였기 때문에 칠머리당굿 전과정 제차의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대라는 특성이 항상 모든 것을 전부 보여줄 수는 없고 또한 시간의 제약을 받기 마련이므로 위의 모든 과정을 다시 압축하여 무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7-8분의 작품으로 제주칠머리당굿을 느낄 수 있는 소품의 창작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위의 전 과정을 압축하여 ‘무속의 군무’라는 작품을 구성하였다.

제주는 신들의 섬이라 부르며 전해오는 신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1만 8천이라 한다. 굿에 쓰이는 기물은 소박하나 모자라지 않고 사실은 풍부하나 육지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았으며, 쓰이는 악기는 모자란듯 하지만 오히려 그 모자람을 다양한 리듬으로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칠머리당굿에서 연희되는 춤은 어찌보면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재해석, 구성하여 무대화함으로써 제주굿의 춤에 예술성을 확보하는 일이야 말로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무속의 군무는 이러한 시도를 위하여 음악의 바탕리듬은 원용하되 풍부한

가락을 더하고 춤의 바탕은 흐트리지 않으며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라 할 것이다.

III. 작품분석

주 제

칠머리당굿이란 제주시(濟州市 健入洞)의 본향당(本鄉堂)굿을 말한다. 본향당이란 마을 전체를 차지하여 수호하는 당신(堂神)을 모신 곳이고 제주항(濟州港)과 사라봉(紗羅峯)사이의 바닷가 언덕의 지명이 ‘칠머리’이다.

칠머리당의 신은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地方監察官)’ 과 ‘요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으로 남편은 마을의 토지, 주민의 생사, 호적 등 생활 전반을 수호하고, 부인은 어부와 해녀의 생업, 그리고 해외에 나간 주민을 수호한다고 한다. 다른 마을의 본향당굿의 대부분이 ‘신과세제(新過歲祭)’인데 반하여 칠머리당굿은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의 두 가지 영등제를 중신으로 짜여진 어촌 부락제인 영등굿인 것이다.

제주의 칠머리당굿이 본향당신을 중시 하지 않고 영등굿을 하게 된 이유는 건입동의 어촌적 성격에 기인한다. 건입동은 예전에는 제주성 동쪽 바깥의 조그마한 어촌이었고 그것이 현재의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어촌이었기 때문에 본향당굿의 성격이 그들의 해상생활과 생업의 풍요를 주는 영등신에 대한 영등굿으로 치뤄지게 되었고, 항구로 변모하면서 어업의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제대로의 영등굿이 저승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영등굿의 기록은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與地勝覽)> 권 28 제주목 풍속조에 보이는데 그 제일(祭日)이 음력 2월 1일에서부터 15일까지로 현재는 1일은 환영제이고 15일은 송별제를 거행하고 있다.

IV. 작업일지

6월 1일	작품선정
6월 8 ~12일	관련 문헌자료 취합
6월 19일	칠머리당굿 기능보유자(김윤수)와 협의 - 전 과정 중 무대화 가능한 부분
6월 24일	관련 비디오자료 및 사진자료 취합 현장 비디오 1차 분석
6월 26일	현장 비디오 2차 분석
6월 30일	현장 비디오 3차 분석 대본 초안 작성
7월 3일	기존에 행해졌던 공연 중 칠머리당굿과 관련된 공연 파일 확인 및 비디오 수집
7월 4-6일	기존 공연 비디오 분석
7월 10일	1차 대본 수정

7월 12일	<p>스텝 책임자 섭외 및 확정</p> <p>-고영일(전 제주도립예술단 단무장 및 제주관광민속예술단 예술감독)</p>
7월 13일	<p>고영일과 향후 일정 협의</p>
7월 20일	<p>2차 대본 수정</p> <p>-칠머리당굿의 현장성 위해 보유자 출연결정</p>
7월 22일	<p>3차 대본 수정</p> <p>-서장에서 제주의 태동을 표현토록 함</p>
7월 28 ~29일	<p>출연자 캐스팅</p> <p>-장호순(경희대 무용과 강사 전국무용제 안무 및 개인상 수상)외 10명</p>
8월 1일	<p>공연관련 출연자 및 스텝 전체 미팅</p> <p>향후 연습 일정 제시 및 조정</p> <p>-8월 말까지 주1회 수요일 20:00시</p> <p>-장소 : 김희숙무용학원</p> <p>참석자들에게 작품의도 및 방향 설명</p>
8월 5일	<p>대본확정</p> <p>-1막4장</p> <p>공연관련 음악 작업 시작</p>
8월 7일	<p>부분 사용할 음악 원작자와 사용에 관한 협의</p> <p>-조영배(제주교육대학 음대교수)</p>

8월 9일	공연일정 확정 및 극장 대관 -2000년 11월 18일(토요일) 18:30 - 남서울호텔 대공연장
8월 13일	안무콘티 작업 시작 -연습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수정하기로 함
8월 15일	전체 출연자 MT -비디오 관람 및 평가 포함
8월 20일	음악 데모 테잎 완성 -지속적인 수정하기로
8월 27일	출연자와 칠머리당굿 보유자(김운수)와의 미팅 -당곳에서 춤을 출 때 주의사항과 마음가짐 등 강의
8월 30일	8월달 훈련 평가 및 9월 훈련일정 회의 -8월달과 같이 하되 연습시간 늘리기로 함
9월 5일	공연에 사용할 의상 점검 -기존의 의상 주 사용가능한 것은 대여하기로 함 -이와 관련 제주도문화진흥원과 협의기로 함 -서장과 3장의 몇 부분은 제작기로 함
9월 7일	제주도문화진흥원과 면담 -의상 및 무대세트 등 대여기로 합의

9월 13일	<p>무대스텝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감독 : 고영일 -조명 : 김정수 -음향 : 김병휴 -진행 : 박성환
9월 14일	<p>2차 데모 음악 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데모에 비해 제주도의 특성이 돋보임
9월 18일	<p>보유자와 출연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자 직접 출연기로 함 -반주 음악도 현장에서 라이브 연주토록 합의
9월 20일	<p>무대 디자인 의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장의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도록 함
9월 25일	<p>음악확정</p>
9월 28일	<p>의상디자인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후 재발송
9월 29일	<p>무대 디자인 수정 및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 디자이너와 조명담당 협의토록 함 <p>10월 연습일정 주2회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일의 기존대로하고 토요일 14:00부터

10월 1일	3장의 경우 각 제차를 모두 개별적으로 행하지 않고 4-5부분으로 나누어 종합적인 구성 체계를 갖도록 함 -군무에 중점을 두기로 함
10월 3일	출연자 확정 -배역지정
10월 10일	공연 소품 점검 및 구입 제작
10월 12일	전체 출연자 및 스태프 미팅 -제작비 과중에 따른 스폰서 필요성 대두
10월 14일	팸플릿 디자인 의뢰
10월 17일	팸플릿 디자인 초안 수정 및 확정
10월 21일	조명담당(김정수)와 연습 후 조명에 대한 의견 교환 -조명플랜 요청 -무대사정상 공연당일 오전 조명세팅기로 함
10월 25일	지금까지 연습결과 평가 -출연자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가 보다 절실함
10월 26일	문예회관 의상 보관실에서 대여사용할 의상 점검 11월 연습 주 4회로 결정

11월 1일	스폰서 완료 팜플릿 인쇄의뢰
11월 3일	의상 및 소품 도착
11월 4일	보유자(김윤수)와 합동연습실시
11월 6일	조명 플랜 완성
11월 7일	플래카드 제작 의뢰 공연비디오 및 사진 촬영 의뢰 각신문사와 방송사에 보도자료 배포
11월 10일	총연습체제로 전환
11월 11일	방송보도용 연습장면 촬영
11월 13일	최종점검 -무대 / 의상 / 소품 / 음향 / 조명 -음향 와이어리스 1대 / 탁상용 3개 필요
11월 15일	무대세팅

11월 16일	오후 - 19:00 최종리허설
11월 17일	리허설시 미비된 무대장치 준비
11월 18일	<p>오전 - 조명 세팅</p> <p style="padding-left: 40px;">* 심사위원 도착</p> <p>오후 - 14:00 조명 리허설 / 17:00 드레스 리허설</p> <p style="padding-left: 40px;">18:30 공연</p>

V. 공연 결과 보고서

1. 준비과정

전체적인 준비과정에 있어 당초에 다른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다.

(1) 대본

일차 대본은 칠머리 당굿 중에서 12제차에 나타난 전과정을 세분하여 다
를 예정이었으나 거듭된 회의를 거쳐 4가지 과정으로 압축하였다.

(2) 공연장소

무대화의 가장 큰 목적의 하나는 대중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예회관
대극장을 상정했었으나 제작여건의 미비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따라서 그
대상도 대중이 아닌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이들에게만 공연관람이 허용되었
다. 반면 그럼으로 인하여 작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긍정
적인 측면도 있었다.

(3) 공연음악

대본이 수정됨에 따라 음악 결정이 다소 늦게 되었고 따라서 출연자들의
연습이 후반부 집중됨으로써 아쉬움이 있었다.

2. 공연

(1) 무대

예상된 문제였으나 전체적인 작품에 비해 무대가 협소하였다. 그런 반면 협소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작품으로서의 독립적인 구성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2) 조명

공연 전문 극장이 아니어서 조명이 작품의 깊이를 느끼게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평면적인 조명으로 작품을 따라가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3) 공연후 평가

심사위원과의 심도 깊은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평가가 참석한 이들의 전문적 소양을 생각할 때 관객과도 이루어져 그 지평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4) 향후 발전 방향

대중을 상대로 공연할 경우 팜플릿 이외의 해설방안 마련과 함께 그 횟수를 늘여야 하고 또다른 다양한 해석과 접근을 통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일회성의 공연을 탈피한 정립이 필요하다.

VI. 공연 관련 보도

제민일보 2000년 11월 18일 토요일

김희숙씨 '제주 곳' ... 1일 총리메이인 크라운호텔 주최

칠머리당굿 춤으로 형상화

제주인 삶 담긴 굿 다양한 동작으로 정림

한국무용의 근원은 굿에서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굿의 정형과 형태 심미성이 보여주는 다양한 움직임은 한국 춤의 특색을 선명히 드러내 준다.

최근부의 그윽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제주의 굿. 그 중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칠머리당굿의 과정을 춤으로 형상화한 무대가 마련된다.

무용가 김희숙씨(본) 오는 18일 오후 8시 30분 총리메이인 크라운 호텔 주최에서 '제주 굿춤'을 선보인다.

30년 무용인생에서 첫 개인발표회 소재를 칠머리당굿으로 선택한 김희숙씨에 이번 공연은 제주인의 삶과 의식세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 굿의 다양한 동작들이 춤으로 정립된다는 의미가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칠머리당굿의 잘 과정이 초창기, 향토음, 피순, 무속의 군무중 내 부분이 나머지 정형된다.

최부본인 초입에는 본질적, 요율맞이까지 한 일출, 해적희로 있다. 칠머리당굿에서는 초입의 8가지 방향을 9가지 요율맞이 10가지 과정이 다른 제지도 구분, 해포보합법, 날과

죽 심김, 연유뒤움, 문문열림까지 정형한 제차로 진행된다.

원자거리와 양복심신의 양생, 해포의 형상, 국기와 선물의 양생을 신에게 이피는 해포도양법과 갖하는 풍수와 남쪽을 설명하는 날지 라심짐, 날것을 풀리지 한 연유를 남피는 연유뒤움등의 과정이 순리스토의 무용으로 형상화된다.

김희숙은 칠머리당굿에서 앞으로 단순의 춤은 리수는 예한을 남아서 무양춤의 소도구로 활용되는 향토의 특색을 도입해준 춤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굿을 진정한 대상의 영혼을 배에 대해 관박으로 차음하고 모든 것을 풀어보내는 해방선과 도간이라는 제자를 무대화한 의춤에 이어 칠머리당굿의 진자령을 양속중 무속의 군무로 모은 무대가 마무리된다.

중앙대 예술대학원 불일다양권을 졸업 이번 무대에는 제주칠머리당굿 보존회 김은수 의장이 직접 출연, 굿과 무속의 어우러짐을 간지한다. 또한 장흥은 강영미 강건형씨등이 함께 출연해 무대를 빛낸다. 문의 -702-0000 (김희숙 기자)

‘제주 칠머리당굿’ 굿춤 무대화

김희숙씨 무용발표회

춤사위 열두 제차별 재구성 - 무용체계 정립
18일 크라운프라자 호텔, 전통을 공연도 마련

‘제주칠머리당굿’이 가장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가운데, 제주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 무용인 김희숙씨(장성대, 예술대학원 공연영상학과 무용전공)는 18일 오후 6시30분 풀리타임인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칠머리당굿’을 춤으로 선보인다.

김씨의 이러한 문헌작품 무대이전 움직임, ‘칠머리당굿’이 제주민속무용의 ‘근간’이란 점에서 그의 주용체인 공연장 큰 의미가 있다.

김씨는 무용으로서 ‘칠머리당굿’의 열두 제차별로 춤사위를 무대를 통해 제주도에서 어찌하는 무용체계를 세우려 하고 있다.

김씨는 고쳐를 초강제·요령맞이·갈단춤, 발모춤, 피준, 무속의 굿주 등 4개로 나눠 무대화했다.

첫 무대는 신을 불러내 굿을 한다는 연유를 알리고 신물이 내려오는 신권을 여는 과정이다. 수삼살과 소머리 봉황채 요령문을 공연하여 연

필도로 배고, 발모 꼬르르, 긴 무명 끈으로 요령다리를 묶는 과정이 볼 만하다. 둘째 환호춤은 제주무속에서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송곳과 말뚝장고로 어항의 춤사위로 옮긴 것.

삼이 오는 길에 모친 사귀자를 뜻하는 ‘새모임’ 과정의 구슬을 바탕으로 해 일행장고와 무구장 춤은, 직극적인 춤사위로 보여준다.

셋째 피승은 정음심을 채운다고 모친 신을 불러내는데는 ‘태상신과 도모를 무대화한 피승 마음의 여운 지는 과정을 표시했다. 넷째 무속의 굿주는 칠머리당굿 전체정말 일러해 무대화한 지점. 다양한 리듬과 역동적인 춤사위가 제주무속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칠머리당굿 무대에 앞서 한국민속춤 무대로 마련된다.

김희숙씨를 비롯한 도내 무용실현이 함께 출연해 강포춤(김해봉무), 삼발이(정성숙무), 소고춤 등을 선보인다. (김요순 기자)

chuse@chejunews.co.kr



○제가 직접 무용무형문화재 제71호인 제주칠머리당굿(사진) 가운데 굿춤을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제주일보 자유사진)

칠머리당굿서 끌어낸 제주 굿춤

칠머리당 굿의 비효율

18일 크라운 프리지

'무속의 군무' 등 공연

무용인 김희숙씨가 '칠머리당' 제주 굿춤이 담긴 이틀으로 채진 공연회를 연다. 18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 안동 크라운 프리지극장내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함께 이날 무대에서는 칠머리당굿의 정가총을 담아낸 춤의 선보인다. 공연 '각물은' 초간재-묘향악-칠머리당 '참오술' '피술' '무속의 군무'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관동무용단(총재 김희숙)이

기초 '제주칠머리당'의 전통무용인 '칠머리당' 수서를 직접 추어 무용단 '각물'이 공연을 선보인다.

'각물'은 '참오술' '피술' '무속의 군무' 등을 무대에 올린다. 무용을 전공한 김희숙 씨가 고서전에서도 '무속의 군무' 등으로 칠머리당 무대를 꾸민다.

김씨는 이날 공연과 관련해 "그동안 제주시립의 힘과 희곡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무용, 국악을 따라다니면서 '고서전'이라고 생각한 작품을 '어떻게 춤으로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관동무용단(총재 김희숙)이

/정신화 기자 jstnet@naver.com

VII. 공연사진

1. 초감제 / 요왕맞이 / 길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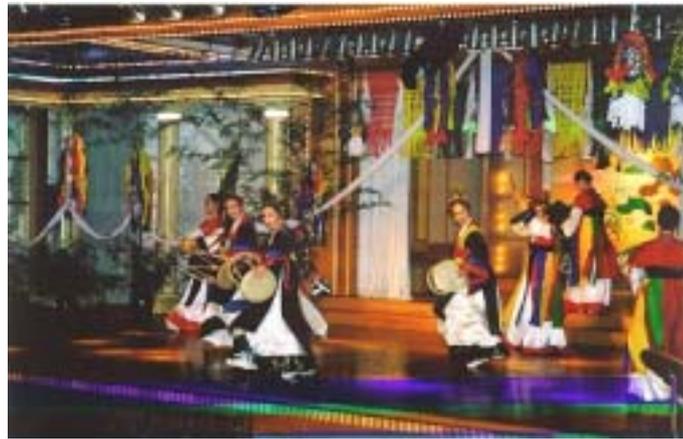




2. 향로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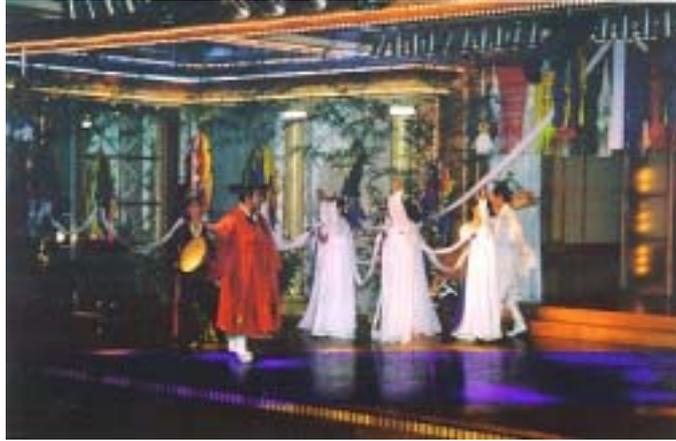






3. 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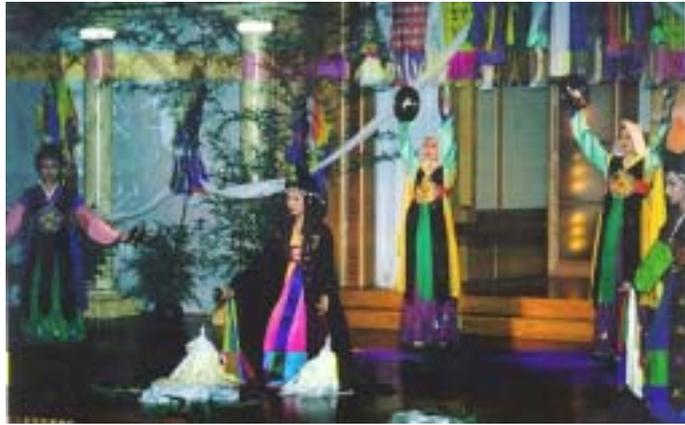
4. 푸다시





5. 무속의 군무







부 록

1) 공연비디오

- 별첨

2) 공연팜프렛

- 별첨